



행복한 성당, 하와이 한인성당

하와이 한인 천주교회

St. Andrew Kim Taegon Oratory

은 우리의 임금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왕 대축일

제2225호

2024년 11월 24일(나해)



오늘의 미사

“나는 진리를 증언하려고 태어났으며,
진리를 증언하려고 세상에 왔다.” (요한 18,37)

▶ 입당송

죽임을 당하신 어린양은 권능과 신성과 지혜와 힘과 영예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옵니다. 영광과 권능을 영원무궁토록 받으소서.

▶ 제1독서: 다니엘 예언서 7,13-14

▶ 화답송

주님은 임금님, 위엄을 입으셨네.

▶ 제2독서: 요한 묵시록 1,5ㄱ-8

▶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받으소서!
다가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는 복되어라!

◎ 알렐루야

▶ 복음: 요한 18,33ㄴ-37

▶ 영성체송 주님이 영원한 임금으로 앉으셨네. 주님이 당신 백성에게 강복하여 평화를 주시리라.

미사 시간 안내

| | |
|------|-----------------------------------|
| 주일미사 | 토요일 오후 4시 |
| | 토요일 오후 7시 |
| | 주일 오전 6시 30분 |
| | 주일 오전 10시 30분 |
| | 주일 오후 4시 (St. Peter & Paul 성당) |
| 평일미사 | 화, 수, 금 오전 10시 30분 |
| | 목요일 오후 7시 |

■ 병자성사나 봉성체를 희망하시거나
임종환자 또는 망자 발생 시에는
신속히 연령회로 연락 바랍니다.

(이영미 세실리아 Home : 808.664.0632
Cell : 808.389.1702)

- 주임신부: 이득규(바오로)
- 사목회장 : 김성연(야고보)
- 사 제 관 : (808) 422-1040
- 사 무 실 : (808) 422-1010
- 성당 주소 : 511 Main St, Honolulu, HI 96818
- 성당 이메일 : honolulukcc@gmail.com
- 홈페이지: <https://standrewkimhawaii.org>



사목 일정

1) 12월 봉성체 안내

12월 봉성체는 12월 19일(목)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병자성사나 봉성체가 필요하신 분은 아래 번호나 사무실로 연락 바랍니다. (이영미 세실리아: 664-0632, Cell 389-1702)

2) Peter & Paul 성당 파견 미사 일정 안내

| | |
|------------|-------|
| 11월 24일(일) | 오후 4시 |
| 12월 1일(일) | 오후 4시 |
| 12월 8일(일) | 오후 4시 |
| 12월 15일(일) | 미사 없음 |
| 12월 22일(일) | 오후 4시 |

* 자세한 사항은 사무실로 문의 바랍니다.

3) 꽃 봉헌 도네이션 감사드립니다.

고병익 크리스토퍼

4) 성당 보수 도네이션 감사드립니다

구수연 에스더

5) 한글학교, 주일학교 무비나이트 행사 도네이션 감사드립니다.

곽성미 루시아, 김용태 요셉,

홍브라이언 프란체스코

6) 2024년 교무금 완납 안내

2024년을 마지막으로 보내면서 올해의 교무금을 아직 완납하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적극 참여하셔서 교무금을 완납해주시길 바랍니다.

| 옥 치과 |
|--|
| 일반치과, 신경치료, 응급치료 메디케어 제공 / 808-946-2875 |

| 김남훈(베드로) CPA |
|--------------------------------------|
| 회계감사, Book Keeping, 세금보고 947-2470 |

| 동양관광여행사 |
|---|
| 항공권도매/섬일주/이웃섬 관광/호텔예약 944-3949/info.orient1988@gmail.com |

| New York Life |
|---|
| 은퇴연금/학자금/재산증식/무료상담차 그레고리오 / 226-3344 |

| 브라이언 오토 바디샵 |
|---|
| 자동차바디수리 ◦ 보험처리/친절상담 홍 프란체스코 / 836-5887 |

| 마마우 바비큐(타운에 위치) |
|---|
| 케이더링, 가족행사, 각종 큰 행사 음식전문 예로니모/808-941-6262, 808-743-8200 |



사목위원회

1) 제대봉헌 도네이션 명단 확인

11월 9일부터 11월 30일까지 제대봉헌 도네이션하신 교우께서는 명단을 사무실에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Thanksgiving day 미사 안내

11월 28일(목)은 Thanksgiving day로 인하여 저녁 7시 미사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3) 2024년 레지오 연차 총 친목회 공지

일시: 12월 1일(일) 교중미사 후

장소: 성당

4) 유아세례 및 첫영성체 안내

12월 25일 성탄 대축일에는 유아세례와 첫영성체가 있을 예정입니다. 1-7세 어린이가 있는 가정 중 유아세례를 받기 원하시는 가정은 12월 15일까지 사무실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하실 때 대부모를 정해오시길 바랍니다.

5) 본당 재정 보고 안내

12월 7일-8일 미사 중에 2023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 본당 재정 보고를 할 예정입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6) 신부님 휴가 및 미사 안내

신부님 휴가 관계로 12월 10일(화)부터 13일(금)까지 미사가 없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구역 및 단체 모임 안내



알아드립니다

1) 꾸리아 월례모임 안내

일시: 11월 24(일) 교중미사 후

장소: 컨퍼런스 룸

2) 명도회 모임 안내

일시: 12월 1일(일) 교중미사 후

장소: 오하나 센터 뒤뜰

3) 상임위원회 모임 안내

일시: 12월 8일(일) 교중미사 후

장소: 성당



재정위원회 2차 헌금 안내

11월 30/12월 1일 Ohana in Christ를 위한 2차 헌금이 있습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지난 10월 5일 -6일 Ohana in Christ를 위한 2차 헌금이 있었으나 본당 설립 50주년 행사로 인하여 부득이 하게 모금을 미루어 11월 30/12월 1일에 2차 헌금을 안내합니다. 이 2차헌금은 호놀룰루 교구청 스케줄에 의하여 이행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 지난주 우리들의 정성(11월16/17): \$9,244.96

| 주일헌금 | 교무금 | 2차헌금 | 특별헌금 |
|---------|------------|---------|---------|
| \$3,685 | \$3,281.96 | \$1,147 | \$1,131 |

위령성월 특집 - 죽음 영원한 삶을 향한 시작(4-4)

■ 죽음에서 희망을 찾는 삶

죽음은 분명 슬픈 일이고, 두려운 일이다. 하지만 부활의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은 마냥 슬퍼하거나 두려워해야만 하는 대상이 아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은 하느님께로 나아가는 과정이며, 끝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시작이기 때문이다

위령미사 감사송은 이렇게 노래한다. "주님, 믿는 이들에게는 죽음이 죽음이 아니요 새로운 삶으로 옮겨감이오니 세상에서 깃들이던 이 집이 허물어지면 하늘에 영원한 거처가 마련되나이다."(위령감사송 1)

따라서 우리는 오히려 적극적인 자세로 죽음을 준비하고, 죽은 이들이 하느님 안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힘껏도와야 한다.

죽은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죽음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그 너머에 있는 영원한 희망을 바라본다. 그 희망을 위해 우리는 오늘의 삶에 충실하고자 노력하며 자신의 삶과 신앙을 되돌아보게 된다. '죽음'에 대한 묵상은 결국 '삶'에 대한 묵상이요, 죽음을 잘 준비하는 것이 곧 삶을 잘 살아가는 것임을 잊지 말자. 위령성월을 맞아 죽음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기면서 세상을 떠난 이들을 위한 기도에 정성을 보태야겠다.

출처 가톨릭 신문

ARBOR Financial Group NMLS# 236669
심소영: 주택용자담당
Cel:(808)798-5100
Email:sharis@arborfg.com

최 니콜 부동산
Locations,LLC Cell 225-5566
www.ChoiHawaii.com
nicole.choi@locationshawaii.com

메디케어 보험
(65세 이상 및 장애인)
한국어, 영어 가능(심 크리스티나)
Shari Shim / 798-5100

메리장 가정의학 클리닉
내과, 소아과, 산부인과 진료합니다
예약전화 808-941-7799

A'ALA Meat & Seafood Inc
문의전화 808-452-8473 서삼열 사무엘
samseo@aalameatandseafood.com

보나 최 부동산
문의 전화 808-636-5217
bona.choi@cbpacific.com
Coldwell Banker P.P.

교회의 장례와 제례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몇 년 동안 암으로 투병해 오시면서 고통 가운데에서도 의연한 모습을 보이셨던 아버지가 끝내 하느님 곁으로 가셨습니다. 죽음을 예상하지 못한 건 아니지만 막상 돌아가시고 나니 머릿속이 온통 하얘졌습니다. 정신이 없는 가운데 장례 절차를 밟았습니다. 먼저 형제들과 의논해서 장례식장을 알아보고 본당 사무실에 연락해서 장례 미사 일정도 잡았습니다. 장례 기간 많은 분이 조문을 오셨습니다. 선종 봉사회 분들을 비롯해 레지오 마리아에 단원분들까지... 많은 신자들이 오셔서 연도를 바쳐주셨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슬픈 가운데에서도 큰 힘이 됐습니다. 장례 미사는 아버지가 다니셨던 성당에서 봉헌됐습니다.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에 아버지를 맡겨드리는 장례 미사 안에서 저는 비로소 아버지의 죽음이 이별이 아니라 부활을 위한 문이며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길임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은 소멸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시작입니다. 현재의 은총에서 내세의 영광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장례는 죽은 이가 하루빨리 부활의 영광을 누리도록 기도로 협력하는 시간이고, 나아가 자신에게 올 죽음과 부활을 되새기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가톨릭교회의 장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톨릭교회의 장례 절차는 임종부터 시작됩니다. 죽음이 임박하면 가족들은 주위를 깨끗하게 청소하고, 상황에 따라 죽음을 앞둔 이에게 유언과 축복을 청하고 병자성사를 받게 합니다. 그리고 임종이 시작되면 임종을 돕는 기도를 바치며, 그 영혼을 하느님께 맡겨 드리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주실 것을 기도합니다. 운명이 확인되면 모두가 무릎을 꿇고 운명 후에 바치는 기도를 올리며 고인의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

이후 정갈한 물로 얼굴을 씻어주고 손과 발을 가지런히 펴주며 두 손에 십자가나 묵주를 쥐어 주고 가슴 위에 얹고, 흠이불이나 하얀 보를 덮고 성수를 뿌린 후 가족과 친지, 본당에 알려 공동체의 기도를 청합니다. 다음으로 집이나 성당 영안실, 혹은 병원이나 전문 장례식장에 빈소를 차리고 상주부터 분향한 후 문상을 받습니다.

문상은 소박하고 정중한 복장을 갖추고 빈소에 가서 성수를 뿌리고 분향한 후 고인과 상주에게 절을 하며 위로의 말을 건네도록 합니다.

이후 장례 기간 내내 고인을 위해 위령기도를 바칩니다. 그리고 보통의 경우 죽음이 분명히 확인된다고 보는 장례 2일 차 이후로 염습과 입관을 합니다. 염습과 입관이 끝나면 빈소에서 나와 성당으로 향하는 출관을 하고, 성당에서 장례 미사와 고별식을 가집니다.

교회는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제사를 성부께 봉헌함으로써 그 자녀의 죄와 그 죄의 결과가 정화되어 하늘나라 식탁의 완전한 파스카에 참여하게 해 주시기를 성부께 청합니다. 이렇게 거행된 성찬례를 통해 신자 공동체, 특히 죽은 이의 가족은 죽은 이가 한 지체로 살아 있는 그리스도의 신비체와 통공을 이루고, 죽은 이를 위하여 죽은 이와 함께 기도함으로써 ‘주님 안에 잠든’ 이와 친교를 이루며 살아가는 법을 배웁니다.

미사에 이어 고별식이 이어집니다. 고별식은 교회가 죽은 이를 하느님께 맡겨 드리는 것입니다. 또, 묘지로 가기 전에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세상을 떠난 형제에게 마지막으로 하는 인사입니다. 이 마지막 인사로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떠나는 이와 의 헤어짐과 그와의 친교, 그리고 재회를 노래합니다.

뒤이어 묘지나 화장장으로 가는 운구 예식이 있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죽음 너머의 영원한 생명을 희망하며 ‘죽은 이의 부활’이라는 신앙을 드러내는 매장을 전통적으로 장례합니다. 그러나 육신의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교의 교리를 부정하지 않는다면 화장도 허락합니다. 가톨릭교회는 또, 유골을 허공이나 땅이나 바다 등에 뿌리는 산골과 유골을 집에 보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범신론적 사고에 입각한 산골은 하느님의 존재도 받아들이지 않을 뿐 아니라 그분께서 세상을 초월해 계신다는 신앙을 부정하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묘지 공간에 마련된 수목, 화초, 잔디 등에 화장한 유골을 모시는 수목장을 포함한 자연장은 그리스도교의 부활 신앙을 반대하는 이유로 선택된 것이 아니라면 허용됩니다.〔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기 위하여〕, 6항 참조)

“사실 우리는 죽어서도 서로 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길을 걸어가 같은 곳에서 다시 만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기 때문에 결코 헤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 안에 결합되어 그분께 나아가고 있으며 우리 모두 그리스도 안에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테살로니카의 성 시메온, 「장례 예식에 대하여」, 367)

가톨릭 평화 신문(2022년 11월 9일자)

| | | |
|--|--|--|
| <p>Business Insurance Service, Inc 보험 컨설팅, 상가·집·자동차 보험 사도요한 김형섭 /599-9810, 592-5011</p> | <p>이한주 마태오 재정설계 상속,절세,롱텀케어,생명보험,연금, 학자금 carlitos3840@gmail.com/213-321-8787</p> | <p>뷰티터치(BEAUTY TOUCH) 한국 화장품 종합 백화점 문의: 임영림 안나 Tel:(808)271-4802</p> |
| <p>(주)에이스원글로벌(사슴태반 전문기업) “당신의 건강과 아름다움을 지켜드립니다” youngminina@gmail.com 문의:류영미 마리아막달레나 808-398-1275</p> | <p>Ginzawon(긴자원) Korean B.B.Q(Waikiki) 문의: 김태영 안토니오 808-220-0768 808-922-3387</p> | <p>묘지매매 묘지: korean Memorial Garden Lot 39 Section B Sites 1,2,3,4 , (판매) 가격 절충 가능 문의: 심소영/ 808-798-5100</p> |